

10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잣 가공품 '코리아파인' 이수근 대표

등록 2022.10.19 11:00:00

기사내용 요약

농식품부, 특허·획득 다양한 제품 개발 높게 평가
연간 100t 잣과·부산물 조달...7가지 가공제품 생산



[세종=뉴시스] 코리아파인 이수근 대표(사진=농식품부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세종=뉴시스] 박영주 기자 =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(人)으로 잣 가공품 개발 회사 코리아파인 이수근 대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.

코리안파인은 지속적인 연구·개발로 특허(4건)와 인증(6건)을 획득해 다양한 잣 가공품을 개발하고,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잣의 고부가가치화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.

코리안파인은 자가 생산 및 12개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, 지역매입을 통해 연간 약 100t의 잣과 잣 부산물을 조달하고 있다. 또 잣을 활용한 잣 오일, 베이커리 제품 등 7가지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.

밀폐된 상태에서 초고압 저온으로 추출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일반기름보다 보존기간을 2배 늘린 잣 오일과 부산물을 활용해 만든 바흠쿠헨(유럽 간식)이 대표 제품이다.

이 대표는 "귀농·귀촌인 대상 창업 강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경험 등을 전파하고 지역의 농업인들과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